

## 정치적인 보도의 새로운 시대

◦ 출처 : 브로드캐스트 (2010/04/16)

### 주요내용

- 곧 있을 올해 영국의 총선거를 위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들은 영국의 모든 방송국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10년 영국 총선거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넓은 범위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 배경으로 한 공천을 시작하면서 영국 방송국들은 각 정당의 정치 운동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음
- 더 가까운 상호 작용을 원하는 공공 사회의 요구로 각 정당의 대표들의 토론이 생겨났고 방송국들은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프로그램 다음으로 이런 정치적인 콘텐츠를 담은 프로그램들을 소셜 미디어 서비스와 많이 결합시키고 있음, 올해의 총선거는 최초로 소셜 미디어 서비스가 정치적인 보도기사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큼
- ITV, 채널 4 그리고 스카이(Sky)가 블로그와 투표 집계를 관리하고 정리하기 위해 각자의 사이트를 커버 잇 라이브(Cover It Live)라는 라이브 블로그 플랫폼과 통합하고 트윗츠(Tweets)와 페이스북은 각 정당 대표의 토론을 방송하는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하루에 이용자들이 약 1억 5,000만 시간을 위와 같은 서비스에 이용했다고 나타남
- BBC는 4월 29일에 열리는 대표자들의 토론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밝히지 않지만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 생소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면서 더 넓은 범위의 많은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고,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므로써 BBC 측은 주요 선거 정책과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더 쉽게 도와줄 수 있고 사람들이 대중적이고 민중적인 진행 절차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기 때문, 4월 초에 런칭 된 BBC 라디오 5 라이브(BBC Radio 5 Live)는 방송국으로부터 총선거 주제의 아이플라이어 오디오 콘텐츠

츠를 수집하고 소셜 미디어 통합자인 5 라이브 커넥트(5 Live connect)를 통해 해설이 전해짐

- 다른 주요 방송국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커버 잇 라이브를 통해서 콘텐츠의 통합과 유통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채널 4는 비록 각 정당 대표자들의 토론을 방송할 기회는 놓쳤지만 3월에 C4 뉴스가 영국 대법관이 함께 하는 토론, 질문 시간을 방송(Ask the Chancellors)하는 기회를 확보했고 이 방송은 C4.com 웹페이지를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됨,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기고 투표를 할 수 있었음, 이런 온라인 방송 보도는 거의 180,000개의 페이지가 열리고 60분 용 방송에서 약 20,000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긍정적인 결과와 반응을 낳고 있음, C4 뉴스 페이스북 페이지는 약 5,000명의 회원들이 약 12,000번 방문을 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토론 후에도 C4는 계속해서 새로운 온라인 도구에 투자할 예정이며 이 중에는 정치인들의 주장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정보 공급원 역할을 하는 ‘페스트체크(FastCheck)’와 정치인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후 노즈 후(Who Knows Who)’가 있음, 이 두 서비스 모두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보 제공에 크게 의존함
- 스카이 뉴스(Sky News)도 정당 대표자들의 토론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의 진출을 시작했고 새로운 시청자들을 겨냥해 제 3자의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전달하는 시도를 최초 실행함, 스카이 뉴스의 대표들 토론 페이지는 현재 1,200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지만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스카이 뉴스 서비스는 고유의 사이트에서 토론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커버 잇 라이브’ 플랫폼을 통해서 방문자들이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ITV는 아직까지 페이스북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림 박스(Facebook Live Stream Box)라는 라이브 블로그 도구를 통해 토론 중에 방문자들이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고 실시간 현황과 댓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페이스북 내 ITV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낼 거임
- 소셜 미디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방송 보도를 증진시키는 도구 역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작은 그룹을 이루는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 경험도 향상 시킬 수 있음, 예를 들면 스카이 뉴스 관련 온라인 네

트위크에 대한 투표 집계, 데이터 등의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이용자 커뮤니티에게 도움을 제공할 것임

- 총선거를 위한 웹사이트의 철저한 검사와 분석의 한 부분으로 스카이 뉴스는 각 선거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렉션 맵(Election Map) 등의 인터랙티브 도구들을 런칭 하고 방문자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찾아주는 후 ‘두 아이 보트 포(Who Do I Vote For?)’라는 앱도 선보임
- 소셜 미디어의 사용으로 나타나는 이익과 장점들은 투입되는 노력과 에너지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방송국들은 소셜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해 이를 통해 예상되는 큰 가능성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 ITV는 ‘브리튼스 갓 탤런트(Britain's Got Talent)’ 등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시작으로 소셜 미디어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GMTV도 크리켓과 축구와 같은 스포츠 프로그램들을 추가함
- 각 정당의 대표자들의 토론 방송은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전달 될 것이지만 온라인, 모바일 TV 등의 다른 장치와 도구들을 통해서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방송국들은 시청자들의 시청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더 풍부하고 상호 작용이 가능한 기회들을 개발할 것임

#### [방송사별 온라인 커버리지]

- **BBC** : 정치 보도 방송을 담당하는 BBC뉴스 페이스북 페이지는 14,7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팬들에게 ‘내가 총리라면(If I Were PM)’이라는 주제의 비디오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중요시 하는 선거 주제를 찾을 수 있게 함, 새롭게 런칭 된 ‘라디오 5 라이브’는 BBC 인터뷰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공급원에서 청취자의 의견들을 수집함
- **ITV** : 선거 토론 방송이 웹사이트를 통해 전달될 것이고 여기서 방문자들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커버 잇 라이브’ 플랫폼을 통해서 투표를 할 수도 있음, ITV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웹사이트에 추가해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들이 소셜 네트워크 전역으로 배급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Channel 4** : 커버 잇 라이브의 지원과 함께 채널 4 홈페이지의 '대법관과 함께 하는 토론 방송'의 스트리밍 전달 방식을 이어서 채널 4 뉴스는 정치적인 견해와 방문자들의 댓글을 포함하는 선거 용 블로그를 런칭했고 '후 노즈 후(Who Knows Who)'와 패스트체크(FastCheck)라는 새로운 네트워크 도구들을 런칭함
- **스카이(Sky)** : 스카이는 고유의 방송 콘텐츠와 BBC의 정당 대표 토론 방송을 온라인에서 스트리밍으로 전달할 것이고 커버 잇 라이브를 사용해서 방문자들이 토론의 한 부분으로 더 가깝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임, 방문자들이 토론에 대한 질문들을 제출할 수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런칭 되었고 약 1,800명의 회원들을 보유함